

107회기 총회 신학부 의뢰 논문

의뢰: 2022년 11월 22일 신학부장 (문서번호 본교 제 101-162호)

작성: 2023년 3월 31일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죄의 의미

김 길 성 교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성경해석학 및 조직신학 전공)

차 례

- I. 들어가는 글
- II. 사용하는 용어 정리
- III.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속죄의 위치
- IV. 구속의 적용 사역과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 V. 그리스도의 순종
- VI. 나가는 글

I. 들어가는 글

본 논문은 107회기 총회 신학부에서 연구 의뢰한 논문으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교리 관련된 건”으로 필자에게 의뢰된 건에 대한 연구논문이다.

최근 수년 동안 국내에서 조직신학이나 역사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 특히 역사적 개혁신학을 표방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순종 교리를 중심으로 열띤 논쟁이 있었다. 그동안 드러난 논쟁의 중심은 이러하다. 한편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구분하고,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의 구분을 부인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자체를 아예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다.

먼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구분하고,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지지하는 글의 일부는 아래와 같다. Hun, “그리스도의 순종을 나의 순종처럼 여기시고 의롭다 하심(The Active Obedience of Christ),” 「Once For All: 역사적인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 그리고 그 경건의 실천에 관한 블로그」(2014.01.16); 김재성, “아담의 불순종과 그리스도의 순종(상),” 「크리스천투데이」(2019.03.18); 김재성, “아담의 불순종과 그리스도의 순종(하),” 「크리스천투데이」(2019.03.25); 유창형,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에 대한 논쟁(6): 분석과 평가,” 「리폼드뉴스」(2021.03.21); 정승원, “죽산 박형룡의 온전한(holistic) 순종,” 1-15; 권경철,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세기 정통주의 신학의 문맥에서,” 1-12; 권경철,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와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 문제,” 「갱신과 부흥」 28

(2021): 143-172); 김병훈, “[특별기고]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의 전가,” 「기독교개혁신보」 (2021.05.20); 김재성,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구원의 본질인가? 논쟁의 대상인가?(1)-(3),” 「리폼드 투데이」(2021.04.05.); 김재성,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서울: 도서출판연약, 2021; 이승구,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한 개혁파 정통신학자들의 고전적 견해,” 「신학정론」 39권 1호: 209-240; 김병훈,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과 피스카토르(Johannes Piscator, 1546-1625) - 논점정리,” 「신학정론」 39권 1호 (2021.12): 241-271; 이남규, “그리스도의 순종에 관한 테오도르 베자(Theodore Beza, 1519-1605)와 요하네스 피스카토르(Johannes Piscator, 1546-1625)의 논쟁,” 「신학정론」 39권 1호 (2021.12): 273-303; 김병훈,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의 전가: 역사적 개관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3회 정암 신학 강좌」(2021.11.16); 박상봉,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의 전가: 초기 종교개혁자들의 견해,” 「제33회 정암 신학 강좌」(2021.11.16); 이승구,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의 전가: 현대개혁파 정통신학자들의 견해,” 「제33회 정암 신학 강좌」(2021.11.16); 김병훈,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의 전가’와 웨스트민스터 총회,” 「신학정론」 39권 2호(2021.12): 47-104; 박상봉,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의의 전가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견해: 루터, 츠빙글리, 칼빈을 중심으로,” 「신학정론」 제39권 2호 (2021.12): 105-164; 이남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전가 부인에 대한 개혁신학자들의 견해와 교회의 결정(1588년-1619년),” 「신학정론」 제39권 2호 (2021.12): 165-226; 이승구, “헤르만 바빙크의 칭의 이해와 그 함의,” 「신학정론」 39권 2호 (2021.12): 361-400; 우병훈, “교회사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교리,” 「갱신과 부흥」 29 (2022): 7-70, 김재성,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18)-(22),” 「바른신앙」(2023.01.06); 이남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대한 개혁교회의 회의 결정,” 「합신은 말한다」(2022.5.23); 박재은, “능동적 칭의(Active Justification) 개념의 신학적 중요성과 필요성 고찰,” 「갱신과 부흥」 30 (2022.09): 121-147. 김병훈, 박상봉, 안상혁, 이남규, 이승구,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의 전가』, 수원: 합신대학원출판부, 2022[「신학정론」 39권 1,2호 및 33회 정암 신학강좌(2021.11.16), 개혁신학사상연구소 특별강좌(2021.11.17-18)에서 발표]; 박형용, “그리스도의 순종과 성도의 구원,” 「신학정론」 40권 2호(2022.12): 227-268 등이 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의 구분을 부인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자체를 아예 부인하는 글의 일부는 아래와 같다. 서철원, “능동적 순종과 관련한 문제점들,”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세미나 발표 논문」(2021.02.16): 1-15; 서철원, “[특별기고] 능동적 순종, 개혁신학적인가?,” 「기독교신문」(2021.04.19); 이창모, “김병훈 교수의 능동순종 주장은 무지인가, 경거망동인가?” 「교회와이단」(2021.06.08); 정이철,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무는 교수들,” 「바른믿음」(2021.11.06); 정이철, “정승원 교수(총신 신대원장)의 박형용의 능동순종에 대한 연구 발표,” 「바른믿음」(2022.05.21); 정이철, 『능동적 순종에 빠진 교회』, 서울: 도서출판다움, 2022 등이 있다.

이 밖에, 최근에 자신의 로마서 주석 초고를 중심으로 로마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순종을 분석한 신약신학자 최갑종, “그리스도의 순종, ‘능동적’인가, ‘수동적’인가?,” 「코람데오닷컴」(2022.10.18)은 조직신학이나 역사신학이 아닌 신약신학 학자가 그리스도의 순종을 연구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한 논쟁이 신약신학 쪽으로 확산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 외에도,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106회 총회의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보고서(2021.09)에 따른 총회의 결의;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72차 총회의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 보고서(2022.09)에 대한 총회의 결의 등이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참고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관련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106회 총회(2021년

9월)에 보고된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이하 이대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능동적 순종 노xx, 김xx 교수 건은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한 분명한 성경적 근거는 잘못되었으나 이를 본 교단에서는 보고서대로 채택하되 2명의 교수는 합신 교단에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 . .” 라고 보고되었고, 이것이 총회 결의로 남게 되었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제71회 총회(2021년 9월) 시 상정된, “그리스도의 능동 순종에 대한 총회의 신학적 입장에 대한 요청의 건”에 대하여 고신 총회 신학위원회가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 및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회로 하여금 1년간 연구하게 하였고, 제72회 총회(2022년 9월)에는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의 연구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대한 신학적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능동적 순종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훨씬 더 풍성하게 이해하게 하고, 칭의에 대한 보다 강력한 확신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교리이다. . . . 또한 신실한 개혁파 신학자들이 가르쳤으며 총회의 신학교에서도 가르친 교훈이기 때문에 계속 소중하게 지켜나가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고신 총회의 결의로 남게 되었다.¹⁾

우리의 논의를 위해 먼저, 최근의 논쟁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사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II. 사용하는 용어 정리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은 그리스도의 순종 교리의 논의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종 교리의 논의는, 넓게는, 그리스도의 품위(The Person of Christ)와 그리스도의 사역(The Works of Christ)이라고 하는 대주제들을 포함하는 기독교론(The Doctrine of Christ or Christology)에 속하는 주요 주제 중 하나이다. 그리스도의 순종 교리는 기독교론의 두 가지 큰 주제인 그리스도의 품위와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속하는 중심 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순종 교리는, 기독교론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르치는 자리에서 논하며,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삼직(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에 속하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The Priestly Office of Christ)과 연계되어 그리스도의 속죄(The Atonement of Christ) 교리에서 논의되는 주요 교리에 속한다.

박형룡 박사의 경우, 개혁주의 속죄론을 기술하면서 형벌 대속론(Penal Substitutionary Doctrine)을 가르치고 있으며, 속죄(the Atonement)의 특성으로 다음의 4가지를 기술한다: (1) 제사성(Sacrifice), (2) 유화성(Propitiation), (3) 화목성(Reconciliation), (4) 구속성(Redemption)을 말하고 있다.²⁾ 또한 속죄의 성질로는 (1) 객관성, (2) 대리성, (3) 순종성, (4) 완전성을 말하고 있다. 위의 논의에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성질을 논하면서 세 번째로 언급한 속죄의 순종성 논의에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을 박형룡 박사는 언급하고 있다.³⁾

1) 위의 우리 총회의 결의와 고신 총회의 결의에 밑줄 친 부분은 강조를 위한 필자의 것임.

2) 박형룡, 『박형룡 박사 조직신학 4: 기독교론』, 개정판 (서울: 개혁주의출판사, 2017), 376-398.

3) 박형룡, 『박형룡 박사 조직신학 4: 기독교론』, 개정판, 387-391. 벌코프는 기독교론에 속하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논하면서, 속죄의 성질로 다음 3가지를 기술한다. 1. 속죄는 객관적이다, 2. 그것은 대리적 속죄이다, 3. 속죄는 그리스도의 능동적·수동적 순종을 포함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내용은 박형룡 박사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기술에서, 객관성, 대리성, 순종성과 일치한다. 다만, 벌코프의 그리스도의 속죄의 성질에 대한 기술에서 박형룡 박사가 언급한 완전성이 빠져있다. 루이스 벌코프, 『벌코프 조직신학 합본』 권수경, 이상원 역 (고양시: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1), 613-622를 참조하라.

박형룡 박사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은 “정확히 해석되어야 그리스도의 순종의 분명한 두 방면을 제시함”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그리스도가 자願하여 고난과 죽음에 굴복하신 것은 그의 능동적 순종의 한 부분이었다.”고 말하고, 반면에, 그리스도가 “율법에 굴복하여 사신 것은 또한 그의 피[수]동적 순종의 한 부분이었다.”고 기술한다.⁴⁾ 이리하여,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은 “그의 대리적 수행으로 본 생애와 죽음의 전부를 포함”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은 “그의 대리적 고난으로 본 전 생애와 특별히 제사적 죽음을 포함”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⁵⁾ 그러나 이 두 가지(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를 구별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이 둘은 서로 분리되기 불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이 둘은 구주의 생애의 모든 점에서 서로 동반하며 끊임없이 서로 투입한다”고 기술하고 있다.⁶⁾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대한 논쟁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대한 초기 루터파 교회의 논의(루터, 멜랑히톤, 캄니츠)와 초기 개혁파 교회의 논의(칼빈, 베자, 특히 베자와 아일랜드 신앙고백서(1615)에 대한 피스카토르의 반대, 피스카토르 등에 대한 프랑스 개혁교회와 화란 개혁교회의 논의), 웨스트민스터 회의 전후의 능동적 순종 논의에 대하여, 최근에 출판된 앨런 스트레인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 윤석인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22)를 참조하라. 또한 이 문제에 대한 미국장로교회(PCA)보고서, 정통장로교회(OPC) 보고서, 미드아메리카 개혁신학교가 작성한 성명 등을 참조하라.⁷⁾

III.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속죄의 위치

한편, 죄인을 위한 구속 사역은 그리스도의 품위와 사역을 논하는 기독교론(Christology)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의 구원을 논하는 구원의 계획(The Plan of Salvation)은 그 논의에 앞서 적어도 두 가지 방면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 그 구원의 계획의 준비와 실행과 실천의 창시자요 주체이신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동시에 그 구원의 계획이 인간의 영역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구원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인간 편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는 점이다(엡 1:3-14, 롬 8:28-30, 딤후 1:9).

개혁파 신학에서는 일찍부터 언약의 관점에서, 언약의 현세적 경륜과 구별하여, 창세 전 영원한 언약으로 구속 언약(pactum salutis, 구속 협약)을 가르쳐 왔다.⁸⁾ 이것을 구속 언약이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구속 협약이라고 부르든지, 독자들이 선택할 몫이고, 어쨌든 타락 후 죄인의 구원을 위한 언약의 현세적 경륜인 은혜 언약(The Covenant of Grace) 이전에, 삼위 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경륜(inter-trinitarian economy)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4) 박형룡, 『박형룡 박사 조직신학 4: 기독교론』, 개정판, 387-388.

5) 박형룡, 『박형룡 박사 조직신학 4: 기독교론』, 개정판, 388.

6) 박형룡, 『박형룡 박사 조직신학 4: 기독교론』, 개정판, 387. 밑줄은 강조를 위한 필자의 것임.

7) 위 보고서들과 성명은 참고문헌을 참조하라.

8) 예를 들면, 헤르만 바빙크, 『개혁 교의학 3』, 박태현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260-263; 벌코프, 『벌코프 조직신학 합본』, 489-495를 참조하라. 바빙크는 위의 책에서, 개혁파 교회들 안에서 구속 협약 교리의 발전을 논한 후, “이 구원[속] 협약 교리는 흠 있는 형태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사상에 근거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위의 책 261페이지를 보라.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엡 1:4, 5)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롬 8:29, 30)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딤후 1:9)⁹⁾

위의 성경 구절들은 성취된 구원의 현세적 적용 이전에,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죄인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이 경우에,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경륜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 중보이신 그리스도의 품위와 사역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지적되어야 한다.

이러므로, 죄인을 위한 구속 사역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 중보이신 그리스도의 품위와 사역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서,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이라고 하는 보다 넓은 관점이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이로써 죄인을 위한 구속 사역은 그 구원의 계획을 설계하시고, 준비하시고, 실천하시고, 적용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과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순종(The Obedience of Christ)을 논하는 그리스도의 속죄(The Atonement of Christ)에 대한 논의는 먼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정점이 되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개혁주의 조직신학에서 그리스도의 속죄 교리의 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한 논의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 중에서도 그의 제사장직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의 의의와 의미에 집중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 한 죄인들을 대신하여, 극한 형벌과 저주와 수욕과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죽음은 그 자체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지만(그리스도의 속죄의 성질과 특성은 위에서 이미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 죽음은 그의 전 생애에 걸친 고난과 율법 아래 오심과 순종의 삶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고 하는 점이다(롬 5:19, 갈 4:4-5, 빌 2:6-8, 히 2:10, 5:8-9). 오히려, 주님의 생애에 있어서 공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종의 자리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요 6:38, 사 52:13-53:12, 갈 1:4-5) 그의 전 생애에 걸친 고난과 순종의 삶의 절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낮아지심)의 단계의 극치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된다.¹⁰⁾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친히 자신의 독생자를 보

9) 논문에 인용되는 성경 구절은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4판에 의한다.

10) John Murray, *Redemption Accomplished and Applied* (Grand Rapids: Eerdmans, 1982), 9-50을 보라. 또한 George Smeaton, *The Doctrine of the Atonement According to the Apostles* (1870; Peabody, MA: Hendrickson Publishers, 1988), 151, 338 참조. 스미튼은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죽음은 그의 무죄하신 전체 순종의 제유법(a synecdoche)이라고 제시한다.

내사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역의 방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랑과 희생의 행위는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시연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위한 하나님의 염원이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길을 제시하셨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단순한 우연의 사건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신중한 행위였다고 제시한다(요 3:16). 요 3:16은 사람이 구원받을 방도를 마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또한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¹¹⁾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¹²⁾

이라고 제시한다. 여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 한 인간을 위한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그 구원의 계획의 준비와 실행과 실천의 창시자요 주제이신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구원의 계획의 수혜자인 인간 편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이미 앞에서 지적했다.

이로써 죄인을 위한 구속 사역을 조직신학적으로 논하자면, 신론(The Doctrine of God)에서 논한 구속의 신적 계획, 그리고 인간론(The Doctrine of Man)에서 논한 범죄한 인간에 대한 구속의 언약적 준비, 그리고 유일 중보이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속의 객관적 사역(historia salutis, 구속 역사)을 논하는 기독교론(The Doctrine of Christ),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택자에게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ordo salutis, 구원의 순서 또는 구원의 서정)을 논하는 구원론(The Doctrine of Salvation)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IV. 구속의 적용 사역과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특히,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속의 적용 사역에 있어서, 믿는 자의 칭의와 성화와 양자 됨(하나님의 자녀 됨)을 포함하여, 믿는 자의 구원과 관련된 복음의 모든 유익들이 성경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엡 1:3, 4-5, 엡 2:4-6, 골 2:4-6, 11-13, 3:1-4, 고전 15:22, 롬 8:30).

사도 바울은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중요성을 다

11) Geerhardus Vos, *Redemptive History and Biblical Interpretation: The Shorter Writings of Geerhardus Vos*, ed. Richard B. Gaffin, Jr.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1980), 372-382를 참조하라.

12) 롬 3: 25, 26.

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¹³⁾

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Unio Cum Cristo)을 통하여 받는 유익에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엔 크리스토 예수, 엔 크리스토, 엔 아우토, 1:1, 3, 4)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바울과 에베소교회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주신다고 바울은 제시하고 있다.¹⁴⁾ 이 경우에, 믿는 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칼빈의 말은 충분히 인용할 가치가 있다. 칼빈은 고전 1:9(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에서 특히, "교제"(크이노니아)를 주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것이 복음의 목적인데, 즉 그리스도는 우리의 것이 되며,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에 접붙여지는 것이다.¹⁵⁾

칼빈에게 있어서, 믿는 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심 교리이자 바로 복음의 목적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칼빈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 교리들을 소개하는 『기독교 강요』에서도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이해해야 하는 사실은 이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바깥에 머물러 계시는 한,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분리되어 있는 한, 그분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고통당하시고 행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과 가치가 없다.¹⁶⁾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어떠한 유익도 누릴 수 없다는 말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칼빈의 구원론의 핵심을 이루며,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구속이 믿는 자에게 적용되는 신학적 구조의 틀을 제공한다. 칼빈의 또 다른 표현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와 같이 엄청난 선(즉, 의롭게 하

13) 엡 2:11-13. 밑줄은 강조를 위한 필자의 것임.

14) 엡 1:1, 3, 4.

15) "AD CORINTHIOS I. CAP. I," in *IOANNIS CALVINI IN EPISTOLAM PAULI AD CORINTHIOS PRIOREM COMMENTARIUM*, 251을 보라. See also <https://books.google.co.kr/books>. 칼빈의 글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Nam hic finis est evangelii, ut Christus noster fiat, ac nos in eius corpus inseramur.

16) John Calvi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n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 20, ed. John T. McNeil, trans.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3.1.1. (이후로는 *Inst.*, 3.1.1.로 표기).

는 의)으로부터 박탈된다. 그러므로, 머리와 지체들이 하나로 연합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는 것, 즉 이러한 신비한 연합이야말로 우리에게 최고로 중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유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공유하는 자로 만드신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게 하기 위하여 그분을 우리 바깥에 계신 분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인 받기 때문에, 간단히 말해서, 황송하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 자신과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의의 교제를 갖는다는 사실을 기뻐한다.¹⁷⁾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신비적 연합(Unio Mystica), 또는 믿는 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Unio Cum Christo)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잘 제시하고 있다.¹⁸⁾ 이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단순히 구속의 적용에 속하는 한 단계가 아니다. 오히려 구속의 적용 사역 전체를 아우르는 틀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관한 논의는 기독교론(The Doctrine of Christ)에만 머물지 않고,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앞에서 이미 지적했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엔 크리스토)라는 표현은 믿는 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며,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 안에서 파악된다.

먼저,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서 비롯된 구원의 근원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엔 크리스토)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¹⁹⁾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고 성경은 가르친다(1:4). 모든 피조물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에서 성부 하나님의 선택은, 그리스도로부터 따로 떼어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구원받게 될 사람들

17) *Inst.*, 3.11.10.

18)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성화”는 개혁주의 성화론의 핵심이다. 싱클레어 퍼거슨에 따르면, 1)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화 또는 거룩이시라는 사실과(고전 1:30), 2) 성화가 신자에게 성취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칼빈을 예로 들고 강조하고 있으며, 개혁주의 성화론은 구원의 선구자요 머리이시며, 창시자이신 그리스도에게 시종일관 초점을 맞추고 있다. Sinclair B. Ferguson, *The Holy Spirit* (Downers Grove: IVP Books, 1996), 93-114를 보라. 또한 Ferguson, “The Reformed View,” in *Christian Spirituality*, ed. Donald L. Alexander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88), 47-76 참조.

19) 엡 1:3-5, 7. (엔 크리스토, 엔 아우토, 엔 호). 밑줄은 강조를 위한 필자의 것임.

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떠나서,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사랑에서 비롯된 궁극적인 계획에서 추상적으로 생각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이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 택자의 구원을 그 근원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역사적으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고(막 10:45), 자기 피로 구속하시고, 이들을 위해 구원을 획득(막 10:34, 벰전 1:18, 19, 엡 1:7)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였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제시된다(롬 6:2-11, 엡 2:4-7, 골 3:3-4),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속량(텐 아포뤼트로신) 곧 죄 사함을 받았다고 가르친다(엡 1:7). 창세 전에 이루어진 성부 하나님의 선택에서 비롯된 자기 백성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떠나서,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단번에 행해진 구속 사역을 바르게 설명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비롯된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은혜 언약(The Covenant of Grace)의 모든 구속적 유익들을 신자들에게 적용시키신다.²⁰⁾ 그리스도께서 그의 낮아지심(비하)과 높아지심(승귀) 안에서 단번에 이루신 것(historia salutis, 구속 역사)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다(ordo salutis, 구원의 서정 또는 구원의 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창조되었다(엡 2:10).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되고(엡 2:8), 또한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어 높이 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통 속에 사는 새 사람의 삶이 시작되었다고 제시된다(고후 5:17, 엡 4:24, 골 3:10).

그리스도께서 신인(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서 그의 전 생애에 걸친 고난과 율법 아래 오심과 순종의 삶, 그리고 그 삶의 정점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단번에 이루신 모든 구속적 유익들은 승귀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신자들에게 주어진다.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고 선택되며 (엡 1:4-5),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부활하며(엡 2:4-6, 골 2:11-13),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고전 1:9),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하며(엡 2:5, 골 2:13),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고전 1:30, 롬 8:1, 갈 2:17),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며(롬 6:5, 고전 6:11),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신앙)을 지키며(롬 6:4, 고전 1-4-9),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며(살전 4:17),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 영화롭게 될 것이다(고전 15:22). 이로써,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엡 1:3).

위에서 살펴보듯이, 유일 중보이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신

20) 구속의 적용 사역의 순서에 대하여, 박형룡, 『박형룡 박사 조직신학 5: 구원론』, 개정판, 102-116, 117-492를 참조하라.

그리스도께서 조성하신 구속의 객관적인 사역(구속 역사, historia salutis)을 죄인의 마음과 생활에 주관적으로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구원의 순서라고 부른다. 개혁파 교회에서 구원의 순서(구원의 서정, ordo salutis)는 다양하다. 박형룡박사는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먼저 논하고, 이어서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의 연결고리를 황금 사슬로 하여 구원의 순서를 차례로 제시한다. 존 머리는 박형룡박사와 구원의 순서는 동일하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영화 앞에 둔다. Murray, *Redemption Accomplished and Applied*, 161-173을 참조하라. 벌코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먼저 다루고(694-701), 이어서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성화, 성도의 견인, 7항목을 차례로 다룬다. 벌코프에게는, 수양과 영화가 빠져있다. 벌코프의 경우, 칭의의 구성 요소를 소극적 요소와 적극적 요소로 구분하고, 전자에는 죄의 용서, 후자에는, 1) 양자 됨, 2) 영생의 권리를 다룬다(766-768). 벌코프, 『벌코프 조직신학 합본』 참조.

자의 믿음과 더불어 시작하며, 영적 연합으로 그와 연합된다(롬 8:9, 10, 요 15: 4, 5). 이 연합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신자의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 그리고 이 믿음의 결과로, 신자는 그의 죽음과 부활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골 1:13-14, 벧전 3:18). 신자는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능력을 입는다(고전 1:30).

이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신자의 삶에 영적인 변혁을 가져온다(롬 8:9, 벧전 2:10). 성령의 능력으로, 신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신자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매를 맺게 된다(엡 2:10). 이 변혁은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결과이며, 신자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표시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또한 신자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기초이다.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신자는 천국에서의 구원과 영생을 보증받게 된다(롬 8:11, 17-18, 30, 벧후 1:10-11, 살전 4:14). 이 보증은 예수와 그의 구속 사역에 대한 신자의 믿음에서 확인된다.

개혁신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중심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신자의 믿음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구원론의 핵심 구조로 강조하는 것은 개혁주의 구원론의 특징이다.²¹⁾ 개혁신학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대한 풍성한 내용을 제공하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를 동시에 제시한다. 개혁신학은 “그리스도 안에서” 비롯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신학의 중심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제시하며, 동시에 오직 믿음으로 연계 되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만이 신자의 칭의(Justification)의 유일한 근거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로써 구원의 전 과정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한 측면에서 기원 되고, 다른 측면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신약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그리스도 안에서”(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표현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고, 구원의 전 과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성질은, 영적이며, 친밀적이며, 생동적이며, 신비적이라고 박형룡 박사는 네 가지를 지적하고 있으며, 이 연합의 특성은 동시에, 유기적 연합이요, 상호 동작적 연합이요, 개인적 연합이요, 협동적 연합이라고 제시한다.²²⁾ 이 연합을 통하여 믿는 개인이 자신의 공로는 아무 것도 없고, 오직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부터 값 없이 받는다는 사실은 믿는 개인의 의식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하는 점이다. 믿는 개인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새롭게 될 때 이 연합이 성립되지만, 믿는 자에게 회개와 믿음(신앙)의 의식적 작용이 시작되기 전에는 이 연합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리하여 신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 주어지는 모든 구속적 유익들을 받게 된다.

V. 그리스도의 순종

한편, 신자의 칭의(의롭다 함을 받음, 의롭다고 칭하심)는 신자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주어지는 구속적 유익들에 속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 강조점이 영적 연합이라고 하는 점이며, 칭의의 강조점은 법적 연합이라고 하는 점이 구별된다. 그리스도의 순종과 관련하여, 칭의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칭의라는 용어의 사용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21) 예를 들면, Herman Bavinck, *Our Reasonable Faith* (Grand Rapids: Eerdmans, 1956), 399-400을 참조하라.

22) 박형룡, 『박형룡 박사 조직신학 5: 구원론』, 개정판, 108-112 참조.

「위키백과」에 따르면, 칭의는 “하나님에 의해 의로워진 행위, 과정, 상태이며, 인간이 죄의 책임과 처벌로부터 의롭고 자유롭게 여겨지는 하나님의 행위”라고 하고, “의롭게 됨” 또는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음”을 뜻한다고 정의한다. 이 정의는 『웹스터 사전』을 따른 정의로, 로마 가톨릭(의화)과 개신교(칭의) 독자들을 모두 만족시키고자 하는 뜻이 있는 듯이 보인다.²³⁾ 그러나 이 정의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칭의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

먼저, 칭의와 관련된 성경의 용어를 살펴보자. 신자의 칭의(Justification)와 관련하여 성경에서 사용된 용어는, 히브리어 히츠딕크와 헬라어 디카이오오이다. 히브리어 히츠딕크의 경우, 대부분이 ‘사람의 신분이 율법의 요구에 조화된다는 것을 재판적으로 선고함’을 의미한다(출 23:7, 신 25:1, 사 5:23, 50:8 등). 그리고 신약 성경에 사용되는 동사형 디카이오오, 형용사형 디카이오스, 명사형 디카이오시스의 의미도,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약 성경에 사용되는 히브리어 히츠딕크와 같은 의미로, ‘사람을 의롭다고 칭함’ 또는 ‘사람을 의롭다고 선고함’을 가리킨다(마 12:37, 롬 3:4, 4:25, 5:18 등).²⁴⁾ 위에 인용된 성경 구절을 몇 개만 살펴보자.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노라
(출 23:7)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 12:37)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롬 3:4)

위의 몇 가지 예에서 간단하게 살펴보듯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칭의와 관련된 용어는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²⁵⁾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의롭다고 칭함’ 또는 ‘사람을 의롭다고 선고함’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칭의를 설명하면서, 사람의 영혼에 은혜가 주입되는 것을 말한다든지, 또는 실제로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성화를 칭의와 혼동하는 것은 로마 교회의 심각한 오류 가운데 하나이다. 이로써, 로마 교회는 칭의와 새롭게 되는 것을 혼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단번에 주어지는 칭의를 성화와 혼동하는 우를 범하게 되었다.²⁶⁾ 예를

23) <https://ko.m.wikipedia.org/wiki>

24) Sinclair B. Ferguson & David F. Wright, ed. *New Dictionary of Theology* (Leicester, Eng.: InterVarsity Press, 1988), 359-361 참조.

25) 로마 교회의 칭의론에서 칭의와 성화의 혼동에 대하여, 박형룡, 『박형룡 박사 조직신학 5: 구원론』, 개정판, 348-350 참조.

26) <http://www.documentacatholicaomnia.edu> · · · PDF 참조. 트레نت 공의회, 제6차 회기 의화에 관한 교령, 제7장에는, “그것은 단순한 죄 사함이 아니라, 은총과 은사들의 자발적인 수납을 통한 내적

들면, 로마 가톨릭의 그늘 아래에서 성장한 루터가, 로마 가톨릭의 오류 아래에서 고민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마침내 로마 가톨릭의 오랜 관습과 잘못된 가르침에서 벗어나, 놀라운 확신과 기쁨으로 즐거워했던 이유가, 그가 신약 성경의 로마서를 통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칭의의 의미를 바르게 발견했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칭의는 로마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칭의(의화)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루터는 성경 연구를 통해 깨달았다.²⁷⁾

실제로, 종교개혁 당시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트렌트 공의회에서 발표한 로마 가톨릭의 공식적 입장을 살펴보면,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트렌트 공의회에서 발표된 칭의에 대한 언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준비, 혹은 성향에 뒤따르는 것은 칭의이다. 칭의는 단순히 죄 사함만이 아니라, 성화이고, 은혜와 은사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임에 의한 속사람의 갱신이다. 이로부터 영생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될 만큼, 불의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되고, 원수가 친구가 된다.²⁸⁾

고 하는 로마 가톨릭의 입장이 선명한 주장이다.

반면에, 루터가 깨달은 칭의에 대한 견해는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수단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가 하는 것이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선언된다'라고 대답한다.²⁹⁾

적어도, 위의 언급된 트렌트 공의회 발표와 루터의 입장의 대조는, 두 입장의 차이를 매우 선명하게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그러나 루터의 경우, 그의 칭의 교리에는 아직도 로마 가톨릭의 입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때때로 로마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갱신적 개념이 들어 있다는 점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루터의 다음 글을 잠시 살펴보자.

아브라함의 계열에 서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은 복을 받는다. 즉, 그들은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다. 이와 같이 의롭게 되어, 그들은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 것이다.³⁰⁾

인간의 성화와 중생이다. 그러므로 불의한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이다.”라고 제시한다. “Chapter VII, What the justification of the impious is, and what are the cause thereof,” in “Decree on Justification,” Session the Sixth on Jan. 1547, *The Council of Trent*, ed. and trans. J Waterworth (London: Dolmann, 1848); Scanned by Hanover College students in 1995.

27)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인, ‘하나님의 의’(롬 1:17)의 의미에 대한 루터의 발견에 대하여, Martin Luther, *D. Martin Luthers Werke: kritische Gesamtausgabe*, vol. 54 (Weimar: Boehlau, 1928), 185-186; vol. 7 (Weimar: Boehlau, 1897), 25-26 참조.

28) *Acts of the Council of Trent, 6th Session, VIII*, in John Calvin, *Selected Works of John Calvin: Tracts and Letters*, ed. Jules Bonnet and Henry Beveridge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83), III: 95.

29) Martin Luther, *Martin Luther: Selections from His Writings*, ed. John Dillenberger (Garden City, NY: Doubleday, 1961), 116.

30) Luther, *Martin Luther: Selections from His Writings*, 16. 밑줄 친 부분은 강조를 위한 필자의 것임. 루터는 『신약성경에 대한 서문』에서, 위에서 언급한 “의롭게 되어”(made righteous)라는 의미로 칭의를 설명하고 있다.

라고 하는 칭의 교리에 대한 루터의 설명에서, 선언적 의미보다는 갱신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루터의 칭의론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다음 기회로 잠시 접어두기로 하고, 개혁파 교회의 칭의에 대한 논의로 다시 돌아오기로 한다.

종교개혁 당시, 종교개혁자들 사이에 칭의 교리에 대한 서로 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공로와 행위를 강조하는 로마 가톨릭의 칭의에 대항하여, 당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이신칭의(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교리(sola gratia, sola fide)는 종교개혁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공통적인 인식이라고 생각된다. 리이드 교수는 이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잘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칼빈은 마틴 루터의 동시대인이었으며, 루터가 정확히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알고 있었다. 이는 루터가 주장한 칭의 교리를 자신이 찬성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만일 그가 루터의 견해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밝혔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일 그가 루터의 견해에 찬성한다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언급했을 것이다.³¹⁾

라고 지적했다. 2세대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1세대 종교개혁자인 루터의 저작을 잘 알고 있었고, 루터의 저작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루터와 칼빈, 두 사람이 모두 칭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루터에게 칭의는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교리로서, 칭의를 잃어버리면 그리스도 자신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³²⁾ 한편, 칼빈에게 칭의는 우리의 구원을 수립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수립하는 토대요, 구원의 모든 교리가 좌우되는 중심축이라고 주장했다.³³⁾

한편, 유효적 소명(효력 있는 부르심)과 중생(거듭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요,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러나 소명과 중생과 더불어, 이를 통해 나타나는 효력은 서로 분리될 수 없고, 사람 편에서 회개와 믿음의 응답을 일으킨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롬 3:22, 24, 5:15-21, 갈 2:16, 빌 3:9), 그리스도 안에서(행 13:39, 롬 8:1, 고전 6:11, 갈 2:17),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그의 전 생애에 걸쳐 이루신 순종(롬 5:17-19)과 특히, 그 순종의 절정인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의 희생(롬 3:24, 5:9, 8:33-34)을 통해서 이루신 그의 의로, 은혜를 받는 사람의 행위는 믿음의 행위이고, 오직 이 믿음을 통해서만 믿는 자가 칭의된다고 말할 수 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된다(엡 2:8). 그러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사람의 행위이지, 하나님의 행위가 아니라는 점이다. 사람이 믿음으로 칭의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다. 믿음은 칭의를 위한 유일한 방편이다(롬 5:18-25).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키지만, 믿음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언제나 신자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믿음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다. 믿음을 통하여 신자는 그리스도를 받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모든 보화를 받는다.

이 경우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사람의 응답으로 일어나는 회개와 믿음(신앙)의 순서에

31) W. Stanford Reid, "Justification by Faith According to John Calvin,"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42, no. 2 (Spring 1980): 290.

32) Luther, *Martin Luther: Selections from His Writings*, 100, 106.

33) *Inst.*, 3.11.1.

대하여, 이는 논리적인 순서이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는 것을 깊이 명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칼빈, 존 머리는 회개에 앞서 믿음을 앞에 두었다. 그러나 벌코프, 박형룡 박사, 마이클 호튼 등은 회심을 믿음 앞에 두었다.³⁴⁾ 이것은 회개와 믿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차이는 시간적인 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강조점의 차이이다. 칼빈은 참 믿음은 참 회개를 수반한다는 단순한 진리에서 출발하고 있으며,³⁵⁾ 박형룡 박사의 경우,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참 회개가 없이는 참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³⁶⁾

이러므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을 통해 주시는 믿는 자의 칭의는,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특히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이다(롬 3:24, 25, 5:9, 6:7, 고후 5:18-21). 그리고 믿는 자의 칭의의 근거가 되는 그리스도의 의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로부터 발생한다. 그리스도의 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의로 표현되며(롬 1:17, 3:21, 22, 고후 5:21, 빌 3:9), 그리스도가 의를 수행한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서였다는 사실이다(고후 5:20, 21).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의의 참여자가 된다(롬 5:17, 18, 19, 6:5, 8:1). 이 의는 우리 밖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수행하신, 그의 전 생애에 걸친 고난과 순종의 결과요, 조롱받으시고 친히 저주의 죽음을 감당하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을 통해 절정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신자에게 믿음으로 주어지는 칭의(의롭다 함을 받음, 의롭다고 칭하심)는 정죄와 정반대되는 말이다(롬 8:33-34, 신 25:1, 잠 17:15).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믿는 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방식을 표현함에 있어서, ‘전가’(Imputation)라는 용어를 흔히 신학에서 사용한다. 이것은 성경에서 첫 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사이의 대조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방식을 신학적 용어로 대신하고 있는 것뿐이다(롬 5:12-21, 고전 1:30, 15:45, 고후 5:21).³⁷⁾ 워필드는 그리스도의 속죄와 관련하여, 전가의 세 방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1) 아담의 죄가 그의 후손들에게 전가되는 것
- 2) 구속주의 백성의 죄가 구속주에게 전가되는 것
- 3) 그리스도의 의가 그의 백성에게 전가되는 것³⁸⁾

을 제시하고 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신자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는 법정적이요, 사법적이라는 것은 앞에서 이미 제시하였다. 그리고 신자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34) 회심(Conversion)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사람의 응답을 표현하는 용어이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회심은 그 자체로 영적인 돌아섬(행 20:21)을 의미하며, 사람이 죄에서 돌아서서(회개)(고후 7:9-10), 하나님께로(행 14:15, 살전 1:9), 그리스도께로(행 4:12, 9:35, 고후 3:16) 돌아섬(믿음, 신앙)을 의미한다.

35) *Inst.* 3.3.1. 칼빈은 “회개는 믿음의 결과이다”라는 소제목으로 제3권 제3장 1절을 시작하고 있다.

36) 박형룡, 『박형룡 박사 조직신학 5: 구원론』, 개정판, 214-251. 박형룡 박사는, 회심이 회개와 신앙(믿음)으로 구성된다고 말하고, “전자 곧 회심의 소극적 부분인 죄로부터의 전환은 회개요, 후자 곧 회심의 적극적 부분인 그리스도예의 전환은 신앙이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위 215페이지를 보라.

37) 첫 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대비에 대한 논의에 대하여, D. Guthrie, *New Testament Theology* (Leicester, Eng.: Inter-Varsity Press, 1981), 333-338; 또한 Herman Ridderbos, *Paul An Outline of His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75), 53-63을 참조하라.

38) B. B. Warfield, *Imputation*, rpt. & ed. Samuel M. Jackson, in *The New Schaff-Herzog Encyclopedia of Religious Knowledge* (New York: Funk and Wagnalls Co., 1909) 참조.

의는 단순히 선언적 행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자 개인에게 그렇게 선고된 새로운 관계를 이루시는 제정적(또는 구성적, constitutive) 행위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롬 5:17-21, 8:33, 사 45:24-25, 61:10).

그러나 신자의 칭의를, 범죄한 죄인의 정죄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그리고 죄책에서 구원받는다는, 죄 사함의 견지에서만 해석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며,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다.

오히려 죄 사함은 신자의 칭의에 포함되며, 칭의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하는 것이 옳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은 죄 사함을 말한다고 제시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히 9:12-22, 10:10, 2:17). 그러나 죄 사함만으로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자의 칭의의 풍성한 의미를 모두 표현할 수 없다. 오히려 신자의 칭의는 그 중심 요소인 죄 사함 외에,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라고 하는 요소를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눅 1:68-75, 롬 3:24, 5:18). 종교개혁자 칼빈도 동일한 어조로 칭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³⁹⁾ 칼빈은 말하되, “우리는 이 칭의가 죄 사함과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구성된다.”라고 말한다.⁴⁰⁾ 또한 칼빈은 그의 『고린도전서 주석』에서, 고전 1:30을 주해하면서 칭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둘째로,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제시한다. 이로써,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으며, 그리고 그의 순종이 의가 되어 우리에게 전가된다. 왜냐하면, 믿음의 의는 죄 사함과 거저 받아들여짐으로 구성되고, 우리는 이 둘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다.⁴¹⁾

고 제시하고 있다. 칼빈은, 칭의를 구성하는 죄 사함 외에,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거저 받아들여짐으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교회의 공적인 신앙고백서에 속한 성경 대요리문답에서도 동일한 표현을 살펴볼 수 있다.

문 70. 의롭다 칭하심(칭의)이란 무엇인가?

답 의롭다 칭하심이란 죄인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행위이니 이것에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기 목전에 그들 자신들을 의로운 자들로 받으시고 여기시는 것이다. 그것은 . . . 오로지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충분한 만족이 하나님에 의해 그들에게 전가되고 또한 믿음으로만 받아들인 바 됨으로 인한 것이다.

(롬 3:22, 24-25, 27-28, 4:5-8, 고후 5:19, 21, 딤후 3:5, 7, 엡 1:7, 롬 5:17-19, 행 10:43, 빌 3:9)⁴²⁾

39) John Calvin, *Joannis Calvini: Opera Selecta*, ed. P. Barth and W. Niesel, vol. 4 (Munich: Kaiser, 1931), 3.11.2, 23을 보라.

40) *Inst.* 3.11.2.

41) John Calvin, *The First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Corinthians*, in *Calvin's Commentaries*, ed. David. F. Torrance and Thomas F. Torrance, trans. John W. Fraser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 Co., 1973), 46.

4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개정판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22), 81. “성경 대요리문답” 참조. 밑줄 친 부분은 강조를 위한 필자의 것임.

또한 성경 대요리문답 문 72에서는, “의롭다 칭하게 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묻고, “. . .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그의 의를 받아 의지함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목전에 의로운 인물로 수납되고 인정되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라고 답하고 있다.⁴³⁾

또한 우리 교회의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살펴보자. 신도개요 제11장 칭의에 관하여라는 제목 아래, 1절에, 하나님은 유효적으로 부르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고 칭하신다.”고 한 후에 이어서,

그것은 그들에게 의를 주입하심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인격들은 의롭게 여기시어 받아들이심으로써이며, 그들 안에 만들어졌거나 그들에 의해 행해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연고만으로써이다.⁴⁴⁾

고 제시한다. 칭의의 두 구성 요소를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전가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그들에게 전가”시키신다고 말하고, 신도개요 제11장 3절에도, “그리스도는 그의 순종과 죽으심을 말미암아 이와 같이 의롭다 함을 얻은 모든 자들의 빛을 다 같이 나눠서, 그들을 대신하여 그의 아버지의 공의에 정당하고 참되고 충분한 만족을 행하셨다.”고 하고, 이어서, “그의 순종과 만족이 그들 대신으로 수납되었는데, 둘이 다 값없이 되었”다고 제시한다.⁴⁵⁾ 제8장 중보 그리스도에 관하여란 제목 아래, 5절에는 “주 예수는 그의 완전한 순종과 영원하신 영을 통하여 단번에 드리신 자기 제사에 의하여 그의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히 만족시키”셨다고 제시한다.⁴⁶⁾

한편, 화란 본국 및 북미와 남아공 등, 해외에 흩어진 개혁교회에서 공적으로 채택하고 고백하는 개혁교회 3대 신앙고백(Three Forms of Unity)인 벨기에 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도르트 신경의 조항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벨기에 신앙고백(1561년)에 따르면, “제23조: 칭의”에 대한 해설에서, “우리는 칭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를 용서받으므로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용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고 제시한다.⁴⁷⁾

또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1563년)에서는, “60문: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속죄와 의와 거룩함을 나에게 돌려 주십니다. 심지어는 내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것처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성취하신 모든 순종은 내가 온전히 성취한 것처럼 여겨 주십니다. 나는 마음으로 믿어 이 은혜를 받습니다.⁴⁸⁾

고 제시한다. 한편, 도르트 신경(1619년)에 따르면, “둘째 교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람의

43)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개정판, 82. 밑줄 친 부분은 강조를 위한 필자의 것임.
44)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개정판, 305. 밑줄 친 부분은 강조를 위한 필자의 것임.
45)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개정판, 305-306. 밑줄 친 부분은 강조를 위한 필자의 것임.
46)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개정판, 300. 밑줄 친 부분은 강조를 위한 필자의 것임.
47) 『개혁주의 신앙고백』, 김학모 편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5), 72-73. 밑줄 친 부분은 강조를 위한 필자의 것임.
48) 『개혁주의 신앙고백』, 김학모 편역, 191. 밑줄 친 부분은 강조를 위한 필자의 것임.

속량”이라는 제목 아래, 제1장-제9장을 제시하고, 다시 “잘못된 주장을 배격함”에서, 제4절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롬 3:24-25를 그대로 인용하여 잘못된 주장을 반박한다(죄를 간과하심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⁴⁹⁾ 위 구절은 3:26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과 연결되어 있다. 위에 언급한 개혁신교회 3대 신앙고백은 칭의를 죄 사함과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수납하고 있다. 특히,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성취하신 모든 순종”이 칭의와 관련되어 있음을 표명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값없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음에는 칭의만 있는 것이 아닌 것도 사실이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낮아지심(비하)과 높아지심(승귀) 안에서 단번에 이루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비롯된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은혜 언약의 모든 구속적 유익들을 신자들에게 적용시키신다. 칭의와 성화와 수양(양자 됨)을 포함하여, 믿는 자의 구원과 관련된 복음의 모든 유익들이, 신자의 믿음을 통하여 승귀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신자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점이다(롬 3:23-24, 8:17, 30, 엡 1:3-7, 2:4-7, 골 2:11-13, 3:1-4, 고전 1:30, 15:22, 롬 8:30). 이 중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받는 몇 가지 유익들을 살펴보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롬 8:30)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롬 3:23-24)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전 1:30)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롬 8:17)

칭의(Justification)와 더불어 다음에 고려할 것은 수양(양자 됨, Adoption)이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중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요 1:12, 갈 4:4-6, 롬 8:15-17, 마 6:9). 그리고 그 중생(거듭남)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성경은 가르친다(요 3:3, 5). 믿는 자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그의 구속 성취로 말미암아 이루신 모든 유익들을 받게 되는 것 중에, 칭의 외에도 수양이 있다. 수양(양자 됨)은 하나님의 가족 중에 전입시키는 행위이며(갈 4:6, 엡 2:19), 동시에 영생의 상속자(후사)가 되는 권리를 보장받는다(롬 8:17). 갈 4:4-6과 롬 8:17을 차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갈라디아서에서,

49) 『개혁주의 신앙고백』, 김학모 편역, 297.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
 라 부르게 하셨느니라⁵⁰⁾

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로마서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⁵¹⁾

고 말씀하신다. 수양(양자 됨)의 두 요소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영생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⁵²⁾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믿는자의 칭의(거듭남)와 수양(양자 됨)은 하
 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며, 동시에, 믿는 자가 믿음으로 받게 되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모든 유
 익들에 속한다. 그리고 이 칭의와 수양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의 순간에 단
 번에 주어지는 유익들이다.

이와 동시에,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옛사람이 죽고(롬 6:6, 22), 새 사람이
 창조되고(롬 6:4, 22), 인격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거룩’(holiness) 또는 ‘성화’라고 부
 르기도 하는데(롬 6:12-13, 12:1, 살전 5:23, 고후 5:17), 이 경우에 신학에서는 점진적 성화
 (Progressive Sanctification)와 구별하여, 결정적 성화(Definitive Sanctification)라고 부른
 다.⁵³⁾ 성경에서 거룩(holiness) 또는 성화(거룩하게 하심, sanctification)와 관련된 용어는 히
 브리어 카다쉬(동), 코데쉬(명), 카도쉬(형)이며, 헬라어 하기아조(동), 하기아스모스(명), 하기오

50) 갈 4:4-6.

51) 롬 8:17.

52) 비교를 위해, 먼저 칭의에 대한 언급은, 박형룡, 『박형룡 박사 조직신학 5: 구원론』, 개정판, 304-360; 수양(양자 됨)에 대한 언급은, 박형룡, 『박형룡 박사 조직신학 5: 구원론』, 개정판, 361-376을 보라.

박형룡 박사는 칭의를 논하는 자리에서, 칭의의 구성 요소로 1. 사죄, 2. 영생권을 논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에 사용된 칭의의 용어에 따라서, 칭의의 구성 요소를 1. 죄 사함, 2.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칭의의 구성 요소 중에, 2.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는 영생권 보다는, 글자 그대로, 믿는 자를 의롭다고 칭하심 또는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기시어 거저 받아들이 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해는 위에서 인용한 칼빈의 글과 우리 교회의 신앙고백서 등에서도 같은 내용을 발견하게 된다(Inst. 3.11.2, 칼빈, 고전 1:30 주해; 성경 대요리문답 문 70, 문72; 신도개요 제11장 참조).

한편, 우리 교회의 신앙고백서에는, 제11장 칭의의 논의 후에 이어서, 제12장 수양의 논의로 이 어진다. 신도개요 “제12장 수양에 관하여”란 제목 아래, 1절에는, “의롭다 함을 입은[칭의] 모든 자들 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를 위하여 양자되는 은혜에 참여하는[수양 (양자 됨)] 자들로 만들어 주신다.”고 제시하고, 이어서 “즉 이 양자 됨에 의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 들의 수에 들어가고 그 자유와 특권을 누리며, . . . , 또 영원한 구원의 후사로서 모든 약속을 물려받 는다.”고 제시한다. 수양(양자 됨)은 칭의와 동시에 발생하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받게 되는 모 든 유익들 중에, 칭의와 구별되는 유익으로 설명하고 있다. 논리적으로, 수양(양자 됨)은 칭의 다음 에, 칭의와 더불어 되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요, 신자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성취로 얻게 되는 유익에 속한다(요 1:12, 갈 3:26, 4:4-7, 롬 8:15-17 참조).

53) 결정적 성화(Definitive Sanctification)에 대하여, John Murray, *Collected Writings of John Murray*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84), II: 277을 보라.

스(형)이다. 구약 성경에서 거룩 또는 성화는 본래 하나님께 돌려지는 용어이고(출 15:11, 레 19:2), 그 파생적 의미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물과 사람에게 적용된다(출 20:8, 22:31). 신약 성경에서 거룩 또는 성화는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인용된 구절들 외에는 몇 군데 드물게 사용된다(요 17:11, 요일 2:20, 계 6:10). 대신에, 믿는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용어들(하기아조, 하기아스모스, 하기오스)이 사용된다고 하는 점이며, 그것도 이 용어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믿는 자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순간 단번에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로 말미암는 유익의 하나로 언급된다고 하는 점이다. 신자의 삶의 초기에 일어나는 어떤 결정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고 하는 점이다(롬 6:1-7:6 등 참조).⁵⁴⁾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고전 1:2, 3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제시한다. 위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그 부르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단번에 되어진 행위라면, 동일한 구절에서 나란히 기록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라는 말도 동일하게 단번에 되어진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살전 4:7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고 말하여, 부르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단회적 의미를 가진 동일 선상에 두고 있다. 이처럼 조직신학에서 흔히 성화(거룩하게 하심, Sanctification)를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으로, 사람이 협력하는 점진적 역사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적이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 특히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이 용어의 다수 용례에 대한 이해와는 차이가 있다. 신약 성경에서 성화 또는 거룩과 관련된 용어의 대부분은 단회적 행위에 언급된다고 하는 사실이다. 물론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점진적 성화를 가르치고 있다(엡 4:13-14, 벧후 1:1-11, 3:18 등)⁵⁵⁾ 조직신학에서 성화에 대한 교리는 결정적 성화와 더불어, 신자의 삶의 시작부터 이후 전 생애에 걸친 점진적 성화를 동시에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삶의 시작과 더불어 주어지는, 칭의(의롭다고 칭함)와 수양(양자 됨)과 결정적 성화(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구별)의 의미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성령 하나님의 적용 사역과 함께 뒤따르는 성도의 성화(거룩하게 하심), 특히 점진적 성화, 성도의 견인, 그리고 영화에 대한 논의는 본 논문의 한계를 넘어가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한다.

VI. 나가는 글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순종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에 관한 속죄 교리를, 범죄한 자기 백성을 위한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제는, 위의 글에서 나타난 내용들을 일부 종합하고, 본 주제와 관련하여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54) 존 머리, 『로마서 주석』, 아바서원 번역팀 (서울: 아바서원, 2017), 261-290 참조.

55) *Inst.* 3.11.1. 칼빈은 신자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믿음으로 소유하게 되는 칭의와 성화에 대하여 ‘이중적 은혜’라고 표현하여, 이 둘 사이의 서로 구별되지만 나눌 수 없는 관계를 제시한다. “하나님이 자기의 선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 가운데 이해하고 소유하게 되었다. 그에게 동참함으로써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중적 은혜를 받게 된다.” 존 칼빈, 『1559년 라틴어 최종판 직역 기독교 강요』, 문병호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22), 340을 보라.

1.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은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을 표현하는 성질로서, 그리스도의 순종의 두 방면을 제시하고 있다.⁵⁶⁾

유일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범죄 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며, 그리스도의 전 생애에 걸친 고난과 율법 아래 오심과 순종의 절정이요, 성부 하나님의 명령과 위탁에 대한 최고의 순종이라고 하는 점이다.

전 생애에 걸친 그리스도의 순종은, 성부 하나님의 위탁과 보내심을 받아, 신인(참 하나님과 참사람)으로서 범죄 한 자기 백성의 죄의 형벌과 저주와 진노와 죄책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순간에도,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친히 그 뜻을 이루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는 그 자체로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순종이요, 범죄 한 자기 백성이 받을 마땅한 형벌과 저주와 진노와 죄책을 대신 담당하신 대속의 죽음이다. 그리스도의 속죄에서 순종과 만족(속상, Satisfaction)은 동전의 양면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속죄에서 그리스도의 순종은, 성부 하나님의 위탁과 보내심에 따라 범죄 한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신 것(수동적인 면)과, 전 생애에 걸쳐 친히 순종하심으로, 이 일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순종(능동적인 면)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의미를 표현하는 양쪽 면을 지니고 있다.

2. 따라서, 그리스도의 속죄에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두 방면의 순종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순종의 두 방면(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과도하게 구분하여, 어떤 면은 신자의 칭의에 관련되고, 다른 면은 신자의 영생에 해당한다고 하는 구분은 옳지 않은 표현이다. 예를 들면, 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에서, 예수께서 배 고물에서 주 무실 때는(마 8:24, 막 4:38, 눅 8:23), 그의 인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요 11:43),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때는(마 8:26), 그의 신성이 강조된 것을 말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위의 두 경우애라도, 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서 그의 인성을 따라 일하실 때, 그의 신성이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또는 그의 신성에 따라 일하

56)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지지하는 개혁신학자들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Fraancisco Turretino, *Institutio Theologiae Elenctica* (Edinburgh: John D. Lowe, 1847), 391ff.를 보라; Giger, George M. & Dennison, Jr., James T. ed. & trans. *Institutes of Elenctic Theology* (Phillipsburge, NJ: P & R Pub. Co., 1994), II: 445-455 참조; 또한 *Turretin on the Atonement of Christ*, trans. James R. Wilson (New York: Board of Publication of the Reformed Protestant Dutch Church, 1859), 36-45를 보라; Charles Hodge, *Systematic Theology* (1872-1873; Grand Rapids: Eerdmans, 1982), II: 493-494, 517, III: 142, 164; B. B. Warfield, *The Person and Work of Christ* (Philadelphia: P & R Pub. co., 1950), 378-387; 헤르만 바빙크, 『헤르만 바빙크, 개혁 교의학』, 박태현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3: 719-720; J. Gresham Machen, *Things Unseen* (Glenside, PA: Westminster Seminary Press, 2020); J. 그레이엄 메이첸, 『보이지 않는 것들』, 노진준 역 (서울: 웨스트민스터프레스코리아, 2022), 623-646; John Murray, *Collected Writings of John Murray*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84), II: 151-157, 212-215, 218; Wayne Grudem, *Bible Doctrine*. ed. Jeff Purswell (Leicester, Eng.: Inter-Varsity Press, 1999), 250-256; Michael Horton, *The Christian Faith*: 마이클 호튼, 『언약의 관점에서 본 개혁주의 조직신학』, 이용중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2), 621-622.

실 때, 그의 인성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질문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의 한계를 벗어난다. 단지 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에서, 어떤 때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서 그의 인성이 강조되어 나타나고, 다른 때는 그의 신성이 강조되어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3. 칭의는 죄 사함만이 아니라고 위에서 이미 지적했다. 신자의 칭의와 죄 사함을 동등시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요, 성경의 가르침에도 옳지 않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속의 적용 사역에 있어서, 신자의 칭의와 성화와 양자 됨(하나님의 자녀 됨)을 포함하여, 믿는 자의 구원과 관련된 복음의 모든 유익들이 성경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엡 1:3, 4-5, 엡 2:4-6, 골 2:4-6, 11-13, 3:1-4, 고전 15:22, 롬 8:30). 신자의 칭의를, 범위한 죄인의 정죄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그리고 죄책에서 구원받는다, 죄 사함의 견지에서만 해석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며,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다.

오히려 죄 사함은 신자의 칭의에 포함되며, 칭의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하는 것이 옳은 표현이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은 죄 사함을 말한다고 제시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히 9:12-22, 10:10, 2:17). 그러나 죄 사함만으로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자의 칭의의 풍성한 의미를 모두 표현할 수 없다. 오히려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신자의 칭의는 그 중심 요소인 죄 사함 외에,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라고 하는 요소를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눅 1:68-75, 롬 3:24, 5:18).

4.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에서, 그의 "율법 아래 오심"은 그의 전 생애에 걸친 순종의 생애와 나누어 생각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순종을 논하는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논의는 먼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정점이 되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에 국한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의 전 생애에 걸친 고난과 율법 아래 오심과 순종의 삶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고 하는 점이다(롬 5:19, 갈 4:4-5, 빌 2:6-8, 히 2:10, 5:8-9).

오히려, 주님의 생애에 있어서 공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종의 자리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요 6:38, 사 52:13-53:12, 갈 1:4-5) 그의 전 생애에 걸친 고난과 순종의 삶의 절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낮아지심)의 단계의 극치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된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오심"은(갈 4:4-5), 성경대로(마 1:21, 요 19:30, 고전 15:3-8),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요 6:38-40),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고난의 종으로(사 52:13-53:12)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빌 2:7, 8)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지상 사역에서 그의 "율법 아래 오심"은, 성경에서 가르친 첫 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비를 통해,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속상)의 사역(고전 15:45, 롬 5:15:'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18:'한 의로운 행위', 19:'한 사람이 순종')의 의의와 의미를 말해주고 있다.

한편, 사람의 창조(창 1, 2장)와 창조 후에, 죄의 기원과 형벌을 말하는 창 3장의 기록은

창 2:16, 17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타락 전 창 2:16, 17을, 타락 후 범죄 한 자기 백성에게 주어진 은혜 언약과 구별하여, 행위 언약(the Covenant of Works)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논란이 되어 왔다. 그러나 행위 언약으로 부르든지, 아니면 생명의 언약, 자연 언약, 아담의 수행(관리체계, Adamic Administration)으로 부르든지, 성경 본문은 언약이라는 말이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1) 두 당사자: 하나님과 사람, 2) 약속: 영생, 3) 조건: 순종, 4) 벌칙: 사망(죽음), 5) 인호: 생명나무를 통해, 언약 명칭의 타당성을 보여주고 있다. 헤프(Heppe)에 따르면⁵⁷⁾, 언약론적 제시를 포함한 최초의 저서는 불링거의 『기독교 대요』였고, 잘 발전된 언약론적 신학은 올레비아누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제시한다. 개혁파 교회는 성경에 근거하여, 창 2:16, 17을 하나님과 타락하지 않은 인간 사이의 언약으로 이해했다.⁵⁸⁾

한편, 칼빈은 아담의 타락을 설명하면서 행위 언약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경이 가르친 대로, 불순종이 파멸의 시작이었다고 제시하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망하게 되었다고 가르치면서(롬 5:19) 이를 확정한다.” 또한 칼빈은 성경이 가르친 대로 그리스도와 아담을 비교하면서, “아담은 단지 우리의 선조일 뿐만 아니라 인성의 뿌리로서 그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응당 사악하게 되었다는 점이다.”라고 제시하고, 롬 5:12와 5:17을 연속으로 인용한다.⁵⁹⁾

우리 교회의 신앙고백서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언약의 방법으로 표현하시기를 기뻐하셨다.”(신도계요 제7장 1절)고 하고, 또한 “아담과 맺은 최초의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으니, 그것에서 자신적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아담에게와 또 그 안에서 그의 모든 후손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제7장 2절)고 제시하고 있다. 성경 대요리문답(문20), 성경 소요리문답(문12)에는 이것을 “생명의 언약”이라 부른다.

이러므로, 첫 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사이의 대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오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의 전 생애에 걸친 순종과 대속의 죽음에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피의 대속에서 그의 “율법 아래 오심”을 제외시킬 수 없는 이유이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의 대리자로서, 자기 백성의 죄로 인한 율법의 정죄와 수욕과 저주와 이로 말미암은 죄책을 담당하셨으며, 율법의 모든 적극적인 요구를 성취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신 것은, 그의 성육신 때문만도 아니요, 그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죽음만도 아니요, 오히려, 오직 우리의 구속을 위한 요구의 정점인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은 그의 순종의 삶의 절정에서 이루신 최고의 순종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특히, 12신조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은 우리 교회가 수납하고 채용한 우리 교회의 공적인 신앙고백서이며, 개 신자의 신앙고백서이다. 반대 의견이 있으면, 노회나 총회 앞에 자신의 견해를 제출할 것이요, 이를 공공연히 비난하는 행위는 금지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된다.

5. 본 논문에서 논의한 신자의 칭의에 대한 논의와 신자의 수양(양자 됨)에 대한 논의는, 성경

57) H. Heppes, *Dogmatik des deutschen Protestantismus im sechzehnten Jahrhundert* (Gotha: Perthes, 1857), I: 150ff.를 참조하라.

58) H. Bullinger, *De testamento sue foedere Dei unico et aeterno* (Zuerich, 1534); Bullinger, *Decades* (Zuerich, 1549-1551); Bullinger, *Compendium christianae religionis* (Zuerich, 1556)를 참조하라. 또한 Vos, *History and Biblical Interpretation*, 234-267 참조.

59) John Calvin, 『1559년 라틴어 최종판 직역 기독교 강요』, 문병호 역, 2: 30, 35. 또한 J. Calvin, *Institutiones Religionis Christianae*, 2.1.4-5를 참조하라.

의 가르침과 칼빈과 우리 교회의 신앙고백서의 가르침을 따라, 바르게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후학들의 활발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6. 역사적 개혁신학을 가르치는 개혁파 교회 안에서 최근 일어난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죄, 칭의 등에 대한 논쟁은, 신학 함에 있어서 유기적이고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 전망의 부재에서 비롯된 논쟁으로 보여진다.

적어도 우리 교회(The Church 또는 Our denomination)에 속하여 임직을 받은 분들은, 먼저, 박형룡, 『박형룡박사 조직신학』, 개정판, 전7권 (서울: 개혁주의출판사, 2017)과 우리 교회의 공적인 신앙고백서인 12신조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들(신도개요 및 성경 대소요리문답)/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개정판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22)을 주의 깊게 읽으시기를 권한다.

참고문헌

1. 저서 및 논문.

- 『개혁주의 신앙고백』. 김학모 편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5.
- 권경철.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세기 정통주의 신학의 문맥에서,” 1-12.
-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와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 문제.” 『갱신과 부흥』 28 (2021): 143-172.
- 김병훈.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과 피스카토르(Johannes Piscator, 1546-1625) - 논점정리.” 『신학정론』 39권 1호 (2021.12): 241-271.
-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의 전가: 역사적 개관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3회 정암 신학 강좌』 (2021.11.16).
-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의 전가’와 웨스트민스터 총회.” 『신학정론』 39권 2호 (2021.12): 47-104.
- 김병훈, 박상봉, 안상혁, 이남규, 이승구.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의 전가』. 수원: 합신대학원출판부, 2022. [『신학정론』 39권 1,2호 및 33회 정암 신학강좌 (2021.11.16), 개혁신학사상연구소 특별강좌 (2021.11.17.-18)에서 발표].
- 김재성.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서울: 도서출판언약, 2021.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106회 총회,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보고서」 (2021.09).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72차 총회,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 보고서」 (2022년 9월).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개정판.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22.
- 박상봉.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의의 전가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견해: 루터, 츠빙글리, 칼빈을 중심으로.” 『신학정론』 제39권 2호 (2021.12): 105-164.
-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의 전가: 초기 종교개혁자들의 견해.” 『제33회 정암 신학 강좌』 (2021.11.16).
- 박재은. “능동적 칭의(Active Justification) 개념의 신학적 중요성과 필요성 고찰.” 『갱신과 부흥』 30 (2022.09): 121-147.
- 박형룡. 『박형룡 박사 조직신학 5: 구원론』. 개정판. 서울: 개혁주의출판사, 2017.
- 『박형룡 박사 조직신학 4: 기독교론』. 개정판. 서울: 개혁주의출판사, 2017.
- 박형용. “그리스도의 순종과 성도의 구원.” 『신학정론』 40권 2호 (2022.12): 227-268.
- 별코프, 루이스. 『별코프 조직신학 합본』. 권수경, 이상원 역. 고양시: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1.
- 서철원. 『교리사』.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5.
- “능동적 순종과 관련한 문제점들.”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세미나 발표논문』 (2021.02.16): 1-15.
- 우병훈. “교회사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교리.” 『갱신과 부흥』 29 (2022): 7-70.
- 이남규. “그리스도의 순종에 관한 테오도르 베자(Theodore Beza, 1519-1605)와 요하네스 피스카토르(Johannes Piscator, 1546-1625)의 논쟁.” 『신학정론』 39권 1호 (2021.12):

273-303.

-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전가 부인에 대한 개혁신학자들의 견해와 교회의 결정(1588년-1619년).” 「신학정론」 제39권 2호 (2021.12): 165-226.
- 이승구.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한 개혁파 정통신학자들의 고전적 견해.” 「신학정론」 39권 1호: 209-240.
-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의 전가: 현대개혁파 정통신학자들의 견해.” 「제33회 정암 신학강좌」 (2021.11.16.).
- “헤르만 바빙크의 칭의 이해와 그 함의.” 「신학정론」 39권 2호 (2021.12): 361-400.
- 정승원. “죽산 박형룡의 온전한(holistic) 순종.” 1-15.
- 정이철. 『능동적 순종에 빠진 교회』. 서울: 도서출판다움, 2022.
- Acts of the Council of Trent, 6th Session, VIII.* In John Calvin. *Selected Works of John Calvin: Tracts and Letters*. Vol. 3. Ed. Jules Bonnet and Henry Beveridge.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83.
- Bavinck, Herman. *Gereformeerde Dogmatiek*: 바빙크, 헤르만. 『개혁교의학』. 전4권. 박태현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 *Our Reasonable Faith*. Grand Rapids: Eerdmans, 1956.
- Bullinger, H. *De testamento sue foedere Dei unico et aeterno*. Zuerich, 1534.
- *Decades*. Zuerich, 1549-1551.
- *Conpendium christianae religionis*. Zuerich, 1556.
- Buswell, J. Oliver. 『조직신학』. 전2권. 권문상, 박찬호 공역. 서울: 웨스트민스터 출판부, 2005.
- Calvin, John. 『1559년 라틴어 최종판 직역 기독교 강요』. 전4권. 문병호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22.
-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2 Vols. In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 20. Ed. John T. McNeil. Trans.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 *Joannis Calvini: Opera Selecta*. Ed. P. Barth and W. Niesel. Vol. 4. Munich: Kaiser, 1931.
- *The First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Corinthians*. In *Calvin's Commentaries*. Ed. David. F. Torrance and Thomas F. Torrance. Trans. John W. Fraser.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 Co., 1973.
- Doctrinal Testimony Regarding Recent Errors*. Dyer, Ind.: Mid-American Reformed Seminary, 2007.
- Ferguson, Sinclair. *The Holy Spirit*. Downers Grove: IVP Books, 1996; 퍼거슨, 싱클레어. 『성령』. 김재성 역. 서울: IVP, 1999.
- Ferguson, Sinclair B. & Wright, David F. Ed. *New Dictionary of Theology*. Leicester, Eng.: InterVarsity Press, 1988.
- Gaffin Jr., Richard B. 『성령 은사론』. 권성수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2.
- Grudem, Wayne. 『조직신학』. 상, 중, 하. 노진준 역. 서울: 은성출판사, 1996.
- *Bible Doctrine*. Ed. Jeff Purswell. Leicester, Eng.: Inter-Varsity Press, 1999.
- Heppe, Heinrich. *Dogmatik des deutschen Protestantismus im sechzehnten*

----- "Report of the Committee to Study Republication." Presented to the 83rd GA (2016) of the OPC.

Packer, James I. 『성령을 아는 지식』. 홍종락 역. 서울: 흥성사, 2002.

Palmer, Edwin H. 『감동적인 성경적 성령론』. 최낙재 역.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2009.

Ridderbos, Herman. *Paul An Outline of His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75.

Reid, W. Stanford. "Justification by Faith According to John Calvin."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42, no. 2 (Spring 1980): 290-307.

"Report of ad interim study committee - on federal vision, new perspective - PCA Historical Center." <https://www.pcahistory.com> ... PDF.

Smeaton, George. *The Doctrine of the Atonement According to the Apostles*. 1870; Peabody, MA: Hendrickson Publishers, 1988.

Stranger, Allan D. *The Imputation of the Active Obedience of Christ in the Westminster Standards*. Grand Rapids: Reformation Heritage Books, 2019; 스트레인지, 앨런.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 윤석인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22.

Tipton, Lane G. & Waddington, Jeffrey C. Ed. *Resurrection And Eschatology*.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2008.

Turretino, Fraqucisco. *Institutio Theologiae Elenctica*. 1679-1685; Edinburgh: John D. Lowe, 1847.

Turretin on the Atonement of Christ, Trans. James R. Wilson. New York: Board of Publication of the Reformed Protestant Dutch Church, 1859.

Van Til, Cornelius. *An Introduction to Systematic Theology*.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1978.

Vos, Geerhardus. *Biblical Theology Old and New Testaments*. Grand Rapids: Eerdmans, 1948.

----- *Redemptive History and Biblical Interpretation: The Shorter Writings of Geerhardus Vos*. Ed. Richard B. Gaffin, Jr.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1980.

Warfield, Benjamin B. *The Works of Benjamin B. Warfield*. 10 Vo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2003.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Glasgow: Free Presbyterian Publications, 1985.

Van Genderen, J. & Velema, W. H. *Beknopte Gereformeerde Dogmatiek*. Utrecht: Uitgeverij Kok, 1992; 판 헨더렌, J., 펠레마, W. H. 『개혁교회 교의학』. 신지철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9.

2. 기타 문헌.

Hun. "그리스도의 순종을 나의 순종처럼 여기시고 의롭다 하심(The Active Obedience of Christ)." 「Once For All: 역사적인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 그리고 그 경건의 실천에 관한 블로그」 (2014.01.16).

김병훈. "[특별기고]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의 전가." 「기독교개혁신보」 (2021.05.20).

- 김재성.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구원의 본질인가? 논쟁의 대상인가?(1)-(3).” 「리폼드 투데이」 (2021.04.05).
-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18)-(22).” 「바른신앙」 (2023.01.06).
- “아담의 불순종과 그리스도의 순종(상).” 「크리스천투데이」 (2019.03.18).
- “아담의 불순종과 그리스도의 순종(하).” 「크리스천투데이」 (2019.03.25).
- 서철원. “[특별기고] 능동적 순종, 개혁신학적인가?.” 「기독신문」 (2021.04.19).
- 유창형.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에 대한 논쟁(6): 분석과 평가.” 「리폼드뉴스」 (2021.03.21).
- 이남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대한 개혁교회의 회의 결정.” 「합신은 말한다」 (2022.5.23).
- 이창모. “김병훈 교수의 능동순종 주장은 무지인가, 경거망동인가?” 「교회와이단」 (2021.06.08).
- 정이철.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무는 교수들.” 「바른믿음」 (2021.11.06).
- “정승원 교수(총신 신대원장)의 박형룡의 능동순종에 대한 연구 발표.” 「바른믿음」 (2022.05.21).
- 최갑종. “그리스도의 순종, '능동적'인가, '수동적'인가?” 「코람테오닷컴」 (2022.10.18).